

류현진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

시즌 13승 달성… 7이닝 6피안타 3실점 호투
“투구에서 홈런 두 개 빼고는 팬찮은 경기”



LA다저스에서 활약중인 류현진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전에서 데뷔 첫 동점 솔로 홈런을 쳤다. 연합뉴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를 마친 뒤 “내 홈런이 뒤, 팀이 대량 득점했다. 그 타석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이날 7이닝 6피안타(2피홈런) 3실점의 호투로 시즌 13승(5패)째를 챙겼다. 그는 타석에서도 동점 홈런을 치며 팀의 7-4 승리에 크게 공헌했다. 다저스는 시즌 100승(56패)을 챙겼다.

류현진은 0-1로 뒤진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안토니오 센사텔라의시속 151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우중간 담을 넘겼다. 비거리리는 119m, 타구 속도는 시속 163km였다. 류현진의 프로 첫 홈런이 나온 뒤, 다저스 타선이 폭발했다. 코디 벨린저의 만루 홈런이 터지며 다저스는 5회에 5점을 뽑았다.

류현진은 홈런을 친 뒤 본업인 투구에 집중했고, 7이닝을 채웠다. 류현진은 “홈런 두 개를 맞은 것 빼고는 좋았던 경기였다”며 “실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자신의 투구를 총평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개인 최다 23홈런

‘멀리 치고 잘 뛰는’ 추신수
4회 적시타 후 2루 도루까지

추신수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كل랜드의 오클랜드 폴시엄에서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방문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 1도루로 활약하며 팀의 8-3 승리를 이끌었다.

1회 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초구를 공략하며 시즌 23호 홈런을 치며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기록(종전 22개)을 바꿔놔고, 4회에는 적시타를 친 뒤 2루 도루를 성공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 0.266, 23홈런, 13도루를 기록 중이다. 출루율은 0.366으로 아메리칸리그 15위다.

추신수는 “나는 한 시즌에 200안타를 치는 타자도, 30홈런을 치는 타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꾸준히 출루하며 20홈런을

치고, 10도루 이상을 하는 타자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지 않다.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에서 20홈런·10도루 이상을 올린 타자는 추신수를 포함해 14명 뿐이다. 이중 추신수보다 나이가 많은 타자는 없다. 27홈런·10도루를 기록 중인 브렛 가르너(36·뉴욕 양키스)를 제외하면 20대 혹은 30대 초반 선수들만 20홈런과 10도루를 동시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무기는 성실함이었다. 그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며 “부족한 재능을 만회하려면 열심히 훈련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실제 추신수는 잘 치고 잘 달리는 타자였다. 클리블랜드 소속이던 2009년과 2010년에는 2시즌 연속 20홈런·20도루에 성공하며 ‘호타준족’으로 인정받았다.

2019년은 추신수에게 ‘수확의 시즌’이다. 추신수는 1500안타, 1천 500경기, 200홈런 등 개인 통산 기록을 차레대로 세웠다.



단일 시즌 기록만 봐도 추신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2017년 22개, 2018년21개의 홈런을 날린 추신수는 올해 23홈런을 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제주선수단 MBC 전국수영 29개 메달

박지혁 전 출전종목 금메달
강지호·강지상 형제 2관왕



박지혁 강지호 강지상

제주선수단이 전국수영대회에서 박지혁의 5관왕에 힘 입어 금메달 11개를 포함해 모두 29개의 메달을 건져냈다.

박지혁(한라중 3)은 지난 18-21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9 MBC 전국수영대회 남중부에서 플랫폼다이빙과 1m스프링보드, 3m스프링보드 금메달을 이어 강지상(한라중 1)과 짝을 이룬 3m싱크로다이빙과 플랫폼싱크로다이빙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5관왕 기업을 토했다. 강지호(도남초 5)는 남초부 플랫폼다이빙과 1m스프링보드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해 형 강지상과 함께 2관왕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윤유빈(한라중 2)·이다연(한라중 1)은 여중부 플랫폼싱크로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여고부에서

는 김예림(남녕고 1)이 3m스프링보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윤성준(제주대 2)은 남대부 3m스프링보드에서 금메달을, 고현아(제주대 3)는 여대부 1m스프링보드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다음은 세부종목 및 부별 입상자 명단.

▶플랫폼다이빙 ▷1위=강지호(남초부) 박지혁(남중부) ▷2위=윤성준(남대부) ▷3위=이예주(여초부) 강지상(남중부) 윤유빈(여중부) 고정권(남일남부) 문나윤(여일남부) ▶1m스프링보드 ▷1위=강지호(남초부) 박지혁(남중부) 고현아(여대부) ▷2위=고현지(여초부) 이다연(한라중) 김예림(여고부) ▷3위=이예주(여초부) 강지상(남중부) 윤유빈(여중부) ▶3m스프링보드 ▷1위=박지혁(남중부) 김예림(여고부) 윤성준(남대부) ▷2위=강지호(남초부) 고현지(여초부) ▷3위=이예주(여초부) 윤유빈(여중부) ▶3m싱크로다이빙 ▷1위=강지상·박지혁(남중부) ▷2위=윤유빈·이다연(여중부) 고현주·문나윤(여일남부) ▶플랫폼싱크로다이빙 ▷1위=강지상·박지혁(남중부) 윤유빈·이다연(여중부)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강대는 조교사가 지난 21일 통산 700승을 달성했다. 사진=렛츠런파크 제주 제공

강대는 조교사 700승 달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3조 조교사로 활동 중인 강대은(55세) 조교사가 데뷔 17년 만에 700승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추석 휴장 전 마지막날 699승을 달성했던 강 조교사는 휴장 이후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진행된 첫 경주에서 700승을 기록했다.

지난 9월 21일 제주경마 1경주에서 안득수 기수가 기승한 ‘광산대로’는 경주 중반 이후 과감한 승부수와 결승선에서의 굳히기로 결승전 통과 직전까지 역전을 노리던 ‘천누리’의 거센 추격을 짜릿한 머리차 승리로 제치며 강 조교사에게 통산 700승의 기록 달성을 선물했다.

강 조교사는 2002년 4월 데뷔해 2019년 9월 현재 통산 전적 6461전 700승 승률 10.8%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제주고 야구부 해체 방침에 학부모 반발

현재 선수 7명 제주고 내년 체육특기자 모집계획 전무
학부모 기자회견 “제주야구 꿈나무들 미래·희망 없애”

제주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야구부를 운영하는 제주고등학교가 야구부 해체 방침을 밝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지역 초·중·고 야구부 학부모들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야구의 미래를 위해 제주고 야구부 해체를 반대한다”며 교육청과 학교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제주에는 초등학교에 신광초와 제주남초, 중학교에 제주제일중, 고등학교에서 제주고가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2곳에는 모두 40여명, 중학교에는 15명의 선수가 있어 제주고 야구부 폐지는 고교와 연계육성이 필요한 초·중 야구부 존

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고는 현재 경기 참가조차 어려운 7명의 선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부상으로 유급돼 내년에 복학할 예정이다. 제주고가 지난 9월 대학생 선수를 16명까지 총원화했다고 약속했지만 프로선수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내세워 전학생을 받지 않고, 내년 체육특기자 전형에도 야구부는 배제됐다”며 “9월

2일 새로 부임한 교장은 아무런 절차 없이 9월 3일 일방적으로 야구부 해체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교장은 면담 시 구조적 문제와 전학생들의 애교심 결여, 문제아들로 구성, 일반학생들의 요구 등을 해체 이유로 밝혔지만 해체 소식을 들은 일반학생 500명이 반대 시명을 했다”며 “제주고에 야구부가 없어지면 당장 제주고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은 야구를 그만두거나 육지로 가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도 제주에서 갈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고의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기간이 12월 17~18일인 반면 다른 지역은 9월 30일까지여서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제주 학생들은 이달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표성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 11:00 다류 공감(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무한리뷰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기분 좋은 날 10:45 웰컴2라이프(재)	6:00 특집 모닝와이드 1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설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똥땅똥 유치원 9:30 원더보이즈 10:0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가 폴리 15:55 출몰! 슈퍼울스 16:10 최고대! 호기심 딱지 4 16:40 똥땅똥 유치원 17:30 페파 피그 19:00 스페이더맨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기록이 다투스 13:50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뉴스 14:10 우리말 겨루기(재) 15:00 KBS뉴스 9 16:00 시사견견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3:05 살피하는 남자들(재) 14:10 생활의 발견(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뷰 샐러드(재) 17:00 다류멘터리 3일(재)	12:00 12 MBC 뉴스 12:20 TV특강 스페셜 13:20 헬로킴즈 동물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16:20 모두 다 콩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 다류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50 만화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K토트 서버이벤트 골든 마이크(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전설!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7:00 김지혁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고대왕가에 이한열입니다 12:00 CBS낮중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술집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제너종합뉴스 18:20 시사자키 정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슬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역사재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시사기획 창(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집 20:30 글로벌24 20:55 거리의 만찬(재) 22: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22:35 너의 노래를 들려줘 23:10 자식체질프로젝트 베짖이	18:25 웃음주식회사 속임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웰컴2라이프 21:30 웰컴2라이프 22:05 다류세이 그 사람 23:05 PD수첩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특별기획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리틀 포레스트 1부 22:40 리틀 포레스트 2부 23:20 불타는 청춘	7:00 KCTV 뉴스 8:30 나 별명은 대통령 9:00 KCTV 뉴스 10:00 KCTV 다류스페셜 12:10 글로벌 아카데미 14:30 KCTV 세비한수 15:00 KCTV 다류스페셜 16:10 스포츠당구 더 레슨 19:00 KCTV 뉴스7 21:00 나 별명은 대통령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4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학원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 즉흥적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48년 쓸데없는 욕심은 마음만 다치고 고민으로 가득차니 금물. 60년 재물욕심이나 이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명한 처신이 정도를 가라. 72년 손님이 방문하거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활동 범위를 넓혀라. 84년 만남이 있으며 미팅도 주선된다.

37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吉. 49년 계약이 성사되고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 내가 먼저 배려를 하라. 61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3년 추진하는 일이 지체되고 부진하다. 폭넓은 대인관계 필요. 85년 이성관계에 즐거움이 있으며 동료와의 모임을 갖는다.

38년 남과 더불어 의논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할 일이 생긴다. 50년 월급생활자는 아간 일이 생기거나 술자리를 동석하니 운전은 자제. 62년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 형제간 대화 필요. 74년 사업확장은 이득이 되지 못한다. 재물관리 철저. 86년 집안에 도둑 줄 일이 생기거나 분상할 일이 생긴다.

39년 명예를 얻으면 자금이 지출되고, 과욕은 관재수를 얻는다. 51년 부친이나 배우자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 63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식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5년 구매충동 또는 소꿉친로 지출을 하게 되고 돌아다니고 싶어한다. 87년 갑작스런 결정은 후회가 따른다.

40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그르치니 냉정함이 필요하다. 52년 적극적인 용기와 실천으로 내 의지대로 행하고 추진하라. 64년 동업은 불리하다. 재물손실 주의. 76년 취업이나 직장문제가 길하고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88년 무리한 추진은 뜻하지 않는 안전사고로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

41년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긴다. 53년 남 애로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65년 귀인의 도움으로 활동력이 커지고 일이 성사된다. 77년 자만심과 독단은 빚들을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 겸손하라. 89년 나태함이 곧 의욕상실로 갈 수 있으니 게으르면 불리하다.

42년 자식이나 후배 부하직원에 의한 재물손실수가 있으니 관리 철저. 54년 친구나 동료와 다툼이 있다. 음주 절제. 66년 열정이나 강한 의욕으로 활동성은 왕성하나 안전사고나 다툼 조심. 78년 취업이나 직장내 구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90년 기록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경합한다.

43년 한마디 말이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5년 기분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실수연발하거나 재물지출이 발생. 67년 뒷사람이나 부모와 의견다툼으로 스트레스가 있다. 79년 직장이나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91년 위장에 탈이 오니 건강검진 필요.

44년 뒷보이나 부모님의 일로 외출을 하게 된다. 56년 추진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부하직원이나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 68년 직장문제나 부부사이에 불화가 올 수 있다. 80년 취업이나 업무에 대한 활동력이 높아지고 좋은 소식이 있다. 92년 내 고집만을 주장하기 보다 친구의 의견도 수렴, 계획을 수립.

45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57년 송사문제나 관재구설,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매사를 심사숙고. 69년 배우자나 남자문제도 자금이 지출되고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 81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하나 찾아 뵈는 것이 마음 편하다. 93년 건강이 약해지니 조심.

46년 초대를 받거나 중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58년 가까운 사이 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인정을 받는다. 70년 재물운이 길하니 활동하라. 뜻하지 않는 귀인의 도움이 있다. 82년 타인의 인정받아 좋으나 피곤이 누적되어 힘이 든다. 재충전의 휴식 필요. 94년 매매나 문서상 변화가 오게 된다.

47년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찾아오니 오늘은 일찍 귀가. 59년 인허가 취득, 승진 명예 등 있으나 자금지출을 동반한다. 71년 배우자나 뒷보의 조언을 수렴하고 추진하면 무방하다. 83년 취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길한 소식이 있다.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필요. 95년 활동할 일이 생기고 모임이 있으니 즐겁다.